

**무료**

# 백야

극단 춤 & 극단 노을  
8.4(토)~5(일) 15:00

작 가 : 한인규  
연 출 : 유니영  
출연진 : 김승환, 이초아, 이윤규, 양예송, 권순별, 김기태  
공연시간 : 90분  
관람등급 : 12세 이상  
장르 : 휴먼드라마

S Y N O P S I S

배우로서의 성공을 위해 같은 연습실을 공유하며 오디션을 준비하는 수리와 재희. 특히 수리는 아내와 사별한 얼마의 간절한 권유로 인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면서도 풀려 연기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던 중 둘은 외국에서 온 유명 연출가의 <갈매기>란 연극에 나란히 캐스팅 되지만 수리는 주연에, 재희는 단역에 뽑히며 엇갈린 운명에 놓이게 된다. 수리는 함께 출연하는 스타 배우 민석의 도움으로 영화까지 캐스팅 되고, 그녀를 짝사랑했지만 포기해야 했던 재희는, 무대를 지켜온 또 다른 선택서형과 함께 연극 활동을 이어간다. 좀 더 화려한 무대를 쫓아가던 수리는 점점 그 이면의 불편한 현실과 맞닥뜨리게 되고, 연극무대에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던 재희는 뒤늦게 빛을 보게 되는데...

**무료**

# 초능력

극단 들락  
8.11(토)~12(일) 15:00

작 가 : 정성운  
연 출 : 정성운  
출연진 : 안영주, 황헌태, 장문수, 유명도, 이궁이라, 유원진, 조현주, 배설하  
공연시간 : 70분  
관람등급 : 12세 이상  
장르 : 판타지 드라마

S Y N O P S I S

**Episode#1 루저스: 영웅의 탄생**  
영화속에 나타나는 초능력자는 언제나 막강한 힘과 뛰어난 기지로 악당으로부터 인류를 구하고 멋지게 그려진다. 하지만 초능력이 생겨 난다고 모두가 영웅이 될까? 만약 그 능력이 정말 쓸모없는 능력이라면? 자신들에게 일어난 변화에 비관하여 생을 마감하려고 모인 루저스의 회원들 앞에 우연히 무장 강도 가 나타내는데...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Episode#2 혼돈: 악당은 만들어 진다**  
이름 모를 명상단체에 들어가게 된 한남자의 이야기. 남자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삶을 배기위해 명상과 요가를 배우려 한 것뿐인데 이곳은 그를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고 한다.

**Episode#3 투명인사상: 지구멸망의 날**  
지구멸망을 남겨둔 10분. 한 쌍의 신혼부부가 있다. 그들은 그동안의 추억을 회상하며 슬픔에 잠겨있다. 그러던 중 부부는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비밀을 털어 놓게 되는데...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무료**

# 영안실

극단 지줄  
8.18(토)~19(일) 15:00

작 가 : 김진수  
연 출 : 석봉준  
출연진 : 석봉준, 김민지, 이호철  
공연시간 : 80분  
관람등급 : 15세 이상  
장르 : 심리스릴러

S Y N O P S I S

어둡고 칙칙한 취조실. 한 남자와 범인이 마주 앉아 있다. 17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마치 영안실에 시체를 안치하듯 자신의 집 지하실 사물함에 보관한 최대의 살인마는 종신형을 선고 받게 된다. 학대와 방임으로 유아기를 보낸 범인의 머릿 속엔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기억의 공간들이 마치 영안실의 안치공간처럼 안치되어 있다. 연쇄살인마의 심리치료를 담당하게 된 정신과 의사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정신감정을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연쇄살인마의 가슴 아픈 과거사를 알게 된다. 과연 그가 밝혀낸 연쇄살인마의 기억은 무엇일까? 점점 혼란으로 빠지게 되는 연쇄살인마의 기억, 그리고 허를 찌르는 놀라운 반전은 계속되는데... 무엇이 그토록 그를 최대의 연쇄살인마로 만들어 버렸는가 퍼즐과도 같은 그의 기억 속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무료**

# 라디오 여자

극단 상상창고  
8.25(토) 15:00

작 가 : 김소정  
연 출 : 김소정  
출연진 : 김소정, 이계한, 이영자, 김주성, 김중민, 황윤정, 이혜영, 진윤정, 안홍경, 정유리  
공연시간 : 70분  
관람등급 : 12세 이상  
장르 : 연극

S Y N O P S I S

이 극의 주인공 그 남자와 그 여자는 약 천만 명의 인구가 살아있는 움직이는 도시, 서울에서 수많은 경쟁을 하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베풀어내는 직장인이다. 그들은 마치 약육강식을 떠올리게 하는 정글에서처럼 그렇게 살벌하게 살아오고 있다. 아근에 업무 외 짐무가 많아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지던 가고, 미래를 내다보고 살기에는 오늘이 너무 힘에 부친다. 스트레스가 점점 커져가던 어느 날, 그 남자는 귀갓길에 동네술집 <까사>에 들리고 새벽에 눈뜨보니 마네킹을 안고 도로에 쓰러져 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개량신이 어디 있을까. 의무공장에서 스커트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그 여자는 마치 꿈에서나처럼 심장을 입고 플라멩코를 추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 남자와 그 여자는 이 시대를 재정의으로 살 수 없는 곳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삶을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그들이 만난 괴짜 진 선생에 의해 아직은 세상이 살만한 곳을 그들은 깨닫게 된다.